

threei Co., Ltd

지능정보(주)

<http://www.threei.net>

다양한 광통신장비개발의 선두기업

광통신용 다채널 영상 송수신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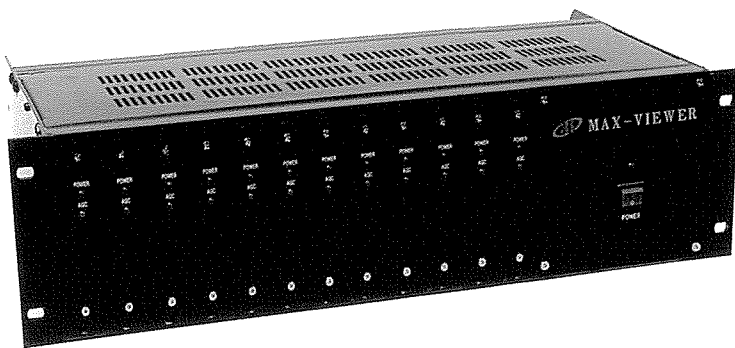
지능정보(주)(대표 · 이점식 <http://www.threei.net>)는 광통신 분야와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광주지역 벤처 기업이다. 최근에는 30채널이상의 영상 및 음성정보를 중간 증폭없이 최대 50km까지 전송할 수 있는 광통신용 다채널 영상 송수신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화제가 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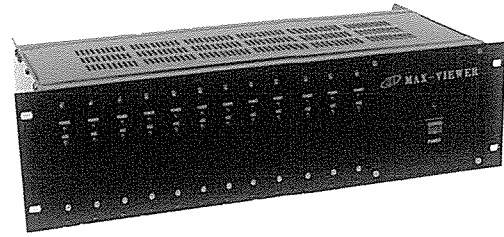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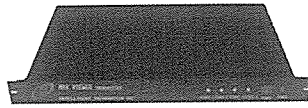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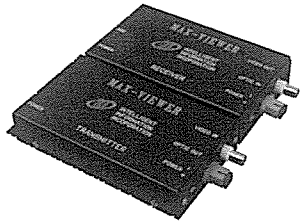
이 회사가 개발한 이 송수신기는 감시카메라 · 교통상황 · 보안회사 등의 각종 CCTV에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의 동축케이블 대신 광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전자파나 노이즈에 강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.

광통신 다중화 모듈을 채택한 이 제품은 특히 전기신호를 빛으로 바뀐뒤 이를 다시 전기신호로 전환해주는 핵심부품으로 그동안 국내수요 전망을 외국제품에 의존해 왔다. 외국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되는 저렴한 가격도 경쟁력이다.

이점식 사장은 “8채널 기준으로 외국산은 760만원인데 반해 지능정보 제품은 200만원대”라며 “수십억원대의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갖춰 수출전망이 밝다”고 설명했다.

이 회사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스템을 공급했으며 군부대의 방화벽과 침입자 감지시스템을 비롯, 공항 · 발전소 · 유전소 등의 대형 국책시설물의 보안 감시 설비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· 외 CCTV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 활용범위를 보안시스템과 지능형 교통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.





1997년 연구소를 시작으로 설립된 기업

지능정보는 이밖에도 전문가집단인 '심봤다' 라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회계법인·변리사 등 전문가 집단과 계약을 맺어 정보검색·특허업무·수출입 개발 및 무역·회계업무 등 총 4개분야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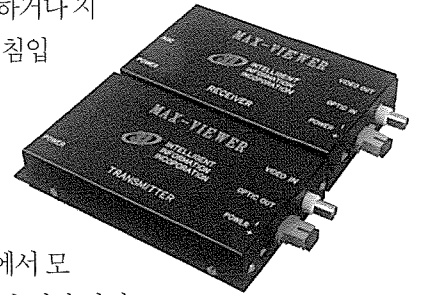
이 회사는 정보통신 분야 교수 4명이 개발한 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1997년 연구소를 시작으로 설립된 기업이다. 연구소 설립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, 이를 기반으로 국내 및 세계 광통신 시장에 그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는 미래 지향적 기업입니다.

100% 국내 자체 기술로 제작, 생산하고 있는 ITS 및 보안감시용 광링크, 광송수신 장치와 결합하여 카메라에서의 영상/음성/데이터 신호를 외부잡음에 영향 받지 않고 장거리 전송,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, 기존의 동축케이블을 이용한 광통신용 광 DVR(Digital Video Recorder) 시스템 및 광섬유를 이용한 광차량검지기, 초고속 홈네트워킹 시스템을 위한 IEEE 1394 응용제품들, 21세기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지능정보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, 그 노력은 앞으로 있을 지능형교통망시스템(ITS), 최첨단 보안 감시 시스템, 초고속 광통신 네트워크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.

광 및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

광통신 시스템 개발업체인 지능정보가 개발한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감지시스템은 광케이블 센서를 철

망이나 벽 등에 부착하거나 지중에 매설한 뒤 외부 침입자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, 장력, 열, 절단 등의 경보신호를 원거리에서 있는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첨단 외곽 감지 시스템이다.



특히 전자파 장애가 전혀 없고, 지능형 신호처리로 오작동을 최소화했으며 다양한 센서 설치 및 경보 감도조정이 가능해 기존 침입자 감지 시스템에 비해 향상된 감지 성능을 보여준다.

또 빛의 전자파 특성을 살린 코히어런트 빛(coherent light)을 이용해 하나의 신호처리기로 최고 수백km까지 감지가 가능하며 수m 단위로 감지구간을 식별하는 높은 정밀도를 갖고 있다.

이점식 사장은 "장기적으로는 광섬유 압력센서와 디지털 동영상 송수신기 개발 등 광통신분야에 주력하면서 인공지능을 가미한 퀴즈게임과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이다"고 말했다.

〈취재 / 기획홍보팀 윤희진〉

